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22 육도윤회도(2)



▶한줄 요약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300년 전이건, 700년 전이건 간에 과보는 온다. 그 업이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면, 업은 백 년 전의 것이건 천 년 전의 것이건 발동한다. 붓다는 "업을 없앨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있다"고 말씀하셨다.

업보는 사라지지 않는다

천년 전통의 업장소멸 경전으로 유명한 〈지장경〉. 〈지장경〉은 오랜 세월 동안, 악업 중생의 구제와 교화의 최전선에서 그 역할을 해왔다. 교화되기 힘든 하(下) 근기 사람들의 무지한 악습은 어떻게 타파되는가? 경전 속에도 이러한 질문이 나온다. 지옥으로 물밀 듯 밀려들어 오는 악업 중생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천왕이 묻는다.

악업 중생, 구제불능 아닌가요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은 오랜 겁을 지내오면서 그와 같은 큰 서원(大願)을 발했는데, 어찌해 지금에 이르도록 아직도 중생들을 다 제도하지 못하고 또 광대한 서원을 발하옵니까?"

자각하지 못하고 악업을 세세생생 반복하는 중생들이 너무나 많아, '미래 겁이 다하도록 지옥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지장보살이 큰 서원'을 세웠으나, 불가항력 아닌가요? 불가항력으로 보이는 저 무수한 악업 중생들에 대해, 역시 굴하지 않고 거듭 큰 서원으로 대적하는 지장보살이 안타깝다'고 호소한다. 이에 세존은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내 이제 그대들과 미래 현재의 하늘과 인간 무리들에게 널리 이익을 주기 위해, 지장보살이 사바세계 염부제 안 생사의 길에서, 일체의 죄고 중생을 구제하고 해탈시키는 자비의 방편에 대해 말하리라"라고 한다. 세존은 지장보살이 일체 죄업 중생을 어떻게 구제하는 지 그 방편을 일러준다.

지장보살은, 만약에 살생하는 자를 만나면 묵은 앙화로 단명하게 되는 과보를 말해보고/ 만약에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가난해 고초 받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사음하는 자를 만나면 공작이나 비둘기 · 원앙새의 과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사나운 말을 하는 자를 만나면 친족끼리 다투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훼방하는 자를 만나면 혀에 부스럼이 나는 과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성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이 더럽게 찌그러지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인색한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과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음식에 절도가 없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에 병이 나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사냥을 즐기는 자를 만나면 놀라고 미쳐서 목숨을 잃게되는 과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부모의 뜻을 어기고 행패를 부리는 자를 만나면 천재지변으로 죽게 되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산이나 숲에 불 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서 헤매다가 죽게 되는 과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전후 부모에게 행패부리는 자를 만나면 내생에 바꿔 나서 매맞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그물로 새끼를 잡는 자를 만나면 골육 간에 이별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후략) ('염부중생업감품(염부제 중생이 받는 업보)' 제4 〈지장경〉)

〈지장경〉의 '염부중생업감품'을 보면 중생들이 흔히 짓는 악업들의 종류가 나열되고, 그것의 과보가 적나라하게 공개된다. 즉, 어떤 (악업의) 원인을 지었을 때, 어떤 (고통의) 과보를 받는지 그 인과의 법칙(원리 또는 패턴)이 나와 있다. 그 법칙은 '(A)하면 → (A)당한다'라는 '한대로 받는다'는 철칙이다.

내용인즉슨, 살생해 남의 목숨을 뺏으면, 다음 생에 내 목숨이 짧아진다(단명한다), 도둑질해서 남을 가난하게 하면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다, 성욕의 부정행위를 하면 축생으로 태어난다(식욕과 성욕 위주로 활동하는 동물로 몸 받는다), 성을 잘 내면 못생기게 태어난다(나와 남의 얼굴을 험악하게 만드니 험악한 얼굴을 받는다), 인색하게 남에게 하면 내가 구하는 바가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남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사냥으로 상대를 놀라 미치게 해 목숨을 잃게 하면 (그 과보로) 내가 미쳐 헤매다 죽는다 등.

'같은 에너지의 윤회'라는 철칙

〈지장경〉에서 말하는 업의 원칙은 '원인과 과보가 같다(동격이다)'이다. 가장 기본적인 업의 원칙이 '(A)하면→ (A)당한다'이다. 그런데, 그런데 '(A)→ (AB)'의 경우로, 원인과 조금 다른 형태의 과보가 오는 경우가 있고, 또 '(A)→ (AAA)'의 경우로 원인의 세 배 가량의 폭풍 과보가 오는 경우도 있다.

〈지장경〉서 말하는 업의 원칙은
'원인으로 인해 받는 과보 같다'
악업 과보 이어지는 고통의 연속
'업보 고통서 벗어나라' 가르침

이에 대해 〈해탈장엄론〉에는 업의 에너지가 크게 3가지 형태로 전개된다고 설명한다. 첫 번째는 이숙과(異熟果, 자신이 한 행위가 숙성돼 또 다른 형태의 결과로서 돌아온다), 두 번째는 등류과(等流果, 저지른 원인과 유사한 과보를 받는다), 세 번째는 증상과(增上果, 악업이 더욱 진행된 결과로서 내게 돌아온다)이다.

예를 들면, 도둑질의 경우를 인용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힘으로 강탈한 탈취, 아무도 모르게 남의 것을 훔치는 은밀한 탈취, 물건의 길이나 무게 등을 속인 기만적 탈취 등으로 나뉜다. 도둑질의 업은 3가지 과보로 자신에게 돌아오는데, '이숙과'의 과보인 경우 아귀로 태어나고, '등류과'의 과보인 경우 인간계에 태어나더라도 가난해 고통을 받고, '증상과'의 과보인 경우 유달리 서리와 우박이 많은 곳에 태어난다"라고 한다.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과 중음 기간의 중생(六道四生中中有情衆), 수륙 판화의 부분. 육도의 세상이 하나의 마음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장경〉에서 말하는 업의 원리는 가장 기본적인 '등류과'에 해당하는데, '저지른 대로 (같은 형태로) 되돌려 받는다'는 것이다. 우선 이 '한대로 받는다'의 업의 법칙에서 중요한 것은 '에너지의 형태'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 대로 받는다'라는 표현보다 '같은 에너지의 형태가 끌려온다'라고 하면 이해가 더 쉽겠다.

예를 들면, 내가 짝궁을 때렸다면, 내가 꼭 그 짝궁에게 다시 맞지는 않는다. 엉뚱한 다른 사람한테 나는 조만간 맞을 수 있다. 즉 내게서 나간 '후려치는 에너지'는, 같은 에너지끼리는 결속되는 원리에 따라, 돌고 돌아 다시 그 에너지를 가진 나에게 돌아온다는 원리이다. '후려치는 에너지'가 꼭 사람을 통해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 같은 '후려지치는 에너지'의 형태로 돌아오기도 한다.

우리가 어쳐구니없고 또는 난데없다고 여기는 모든 상황의 껍데기는 두고, 그 안의 에너지가 보이기 시작하면 드디어 '인과의 법칙'(위빠사나 제2단계)에 눈 뜨게 된다. 업의 에너지는 껍데기(육안으로 보이는 유형의 물질) 상관없이 자재(自在)하다. 그렇기에 몸이 죽어도 업은 남아 다음 생으로 또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업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온다. 편안한 마음으로 살면 편안한 상황이 오고, 조바심 내는 마음으로 살멸 계속 조바심 내는 상황이 온다. 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나온다. 열심히 기도하면 계속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다 이룬 듯 평정심으로 기도하면 평정한 상황이 온다.

사랑받지 못하는 결핍감에 머무르면 계속 결핍된 상황이 일어나고, 행복하고 감사한 충만감에 머무르면 충만한 상황이 일어난다. 배신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배신하는 에너지의 사람들(도반이나 부모, 형제)로 들끓게 된다. 즉, 나의 에너지에 대한 각성(알아차림)이 업을 이해하는 또 업을 소멸하는 첫 걸음이다.

인과의 과보 깨우쳐주려고

그렇다면, 지장보살이 중생이 가장 흔히 짓는 악업과 그 과보를 구구절절 나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악업 중생을 정죄하고 벌주려는 것이 아니다.

"이 세계의 죄고 중생을 사랑하고 가엾이 여겨, 미래의 무량겁으로 업의 인이 이어져 끊이지 않음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므로 또 거듭 원을 발하느니라. 이러한 보살은 사바세계 염부제 안에서 백천만억 방편으로 교화하고 있나니라."

지장보살이 이렇게 악업의 과보를 경고하는 이유는, 먼저 고통 속의 악업 중생이 불쌍하기 때문이다. 악업 중생이 자각하지 못하고 계속 악업의 인(원인)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짓고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초래한 악업은 본인이 받아 계속되는 고통의 도가니이니, 제발 그 인과를 알아 그만 악업을 짓고 고통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보는 언제 오는가? 가깝게는 방금 전 또는 어제, 몇 주 전의 업이 바로바로 돌아온다. 그리고 멀게는 3생 이전의 업 역시 현생에 과보로 오는 경우가 많다. 다시 강조하지만, 업은 물질과 시공을 초월한다. 그리고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300년 전이건, 700년 전이건 간에 과보는 온다. 언제 오는가? '조건이 될 때' 온다. 그 업이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면, 업은 백 년 전의 것이건 천 년 전의 것이건 발동한다. 붓다는 "업을 없앨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있다"고 말씀하셨다. '알아차림(각성의 힘)'으로!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불기 2568(2024)년 갑진년(甲辰年)

신년 축하광고 접수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다사다난했던 계묘년의 해가 저물어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계묘년 한 해 현대불교신문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은혜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복과 소망이 성취되는 새해 새 마음을 담아
불기 2568(2024)년 갑진년 신년 특집호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세상 곳곳에 전해지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	T. 02)2004-8204	F. 02)737-0698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제주지사	010-3697-2441	김용덕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0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KB(국민)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